

지방자치·종합

“한미FTA 수혜 재원 농업 재투자”

전남도, 고령농가 보조금 지원·축산자금 2조 조성 등 건의

국회 농림위, 밭작물 직불제·면세유 일몰 10년 연장 요구

전남도는 17일 한·미 FTA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에 재투자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건의했다.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폐업농가 대상 작목 전환 지원 확대와 농업재해보험 대상 전 품목 확대 등도 촉구했다.

전문단지 50곳을 조성하는 등 도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앞으로도 FTA 대응 정책과제를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과 관련 “현재 여야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여야정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보완대책을 이날 말까지는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오른쪽)이 복제에 성공한 코요테들을 김문수 경기지사(오른쪽에서 2번째)에게 기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석 박사, 세계 최초 ‘이종간 동물복제’ 성공

개 난자 이용 코요테 복제

황우석 박사가 개의 난자를 이용해 코요테 복제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황 박사에게서 기증받은 코요테를 번식시켜 국내 동물원에 먼저 기증하고, 개체 수가 많이 확보되면 외국에도 기증할 계획이다.

복제 코요테가 1주일 만에 죽었다. 이어 황 박사는 2번째로 복제를 시도해 이번엔 총 8마리의 코요테 복제에 성공했다. 황 박사가 복제에 성공한 코요테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에 기증돼 사육된다.

민주, FTA ‘先대책 後처리’ 재확인

농수축산업 예산확보 등 3대 선결과제 선정

민주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선(先) 대책 후(後) 처리’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에 상응하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농수축산업 종사자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3대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표는 이날 “방향이 잘못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의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이 미흡한 ‘준비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만 도움이 되는 ‘부자 중심의 FTA’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대통령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끝장토론’ 파행

외통위, 의사진행 방식 놓고 찬반 엇갈려

국회 외교교통상위원회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끝장토론’이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2시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과 반대 측 진술인들은 토론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토론을 종결하지 않고 상호토론을 보장하며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발언권이 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 공청회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 건수 8배 늘어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에 제기된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FTA비준 ‘전방위’ 설득

5부 요인·여야 대표 등 초청 간담회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이 분주하다.

이 대통령은 17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 5부 요

인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양방이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 국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부속규정을 조처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양방이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 국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LOTTE JTB Travel & Life advertisement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various destinations like Shanghai, Beijing, Korea, Europe,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1577-6511 and website www.LOTTEJTB.com.

본지는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및 국민관광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준수합니다. 여야합동 기자회견(사설)은 여야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합니다. 여야합동 기자회견(사설)은 여야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합니다. 여야합동 기자회견(사설)은 여야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합니다.